



- 연중 제23주일 - 2019년 9월 8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6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mailto:jubo@uca.or.kr)

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설립 2005년 12월 전화 사무실 031--856-0213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8-1

**제1독서** 지혜 9,13-18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 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 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 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 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

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필레 9L-10,12-17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135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루카 14,25-33

**영성체송**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포기, 약해지기 위한 용기



이재원 율리오 신부  
백석동 부주임

사랑에 빠진 연인은 서로를 완벽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은 매력으로 다가오죠. 단점이 단점으로 안보이고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연인이 언제 예고된 격렬한 다툼을 일으킬까요? 결혼 준비 때입니다. 소위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를 할지 말지, 하면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이 합리적인지, 결혼식장 위치는 어디로 해야 양가친척과 손님들이 만족할지 등 머리 아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결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더 늦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쯤 결혼 준비가 될까요? 서로에 대한 완벽함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내 연인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사실 연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징표입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연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경험에 매료됩니다. 나의 외로운 내면을 이해하고, 내가 왜 하필이면 그런 우스갯소리와 농담에 웃음이 나오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연인의 이해 능력에는 적정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내 심정을 읽어내고, 언제나 친절함을 잃지 않고 항상 나를 더 나아지게 해 줄 사랑을 그린다면, 그것은 '낭만'이기보단 '재난' 예고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씩 버리고, 사랑하기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 듭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포기'로 가벼워집니다.

'포기'는 약해지기 위한 용기입니다. 영원을 향한 십자가 여정 길에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기'임을 기억합니다. ☸



## 식전기도에 담긴 작은 각오에 대해

백석동 성당 / 김나현 루치아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정에서 유일한 신자인 저는 어디 응석 부릴 곳이 없기에, 이 글을 빌어 아주 작은 고민을 털어 놓아보려 합니다. 사실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보는 성격인 저에게는, 사소한 식전기도조차 아직까지는 너무 어렵고 버겁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성호를 긋고 수저를 드는 것이 도대체 뭐가 어렵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에게 식전기도는 매일이 도전입니다. 이제부터 새로 가톨릭 신자가 된 저의 입장에서 식전기도에 담긴 각오에 대해 조금은 길게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지 두 달이 된 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이 함께하는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약 20여 명이 뒤섞여 앉은 긴 식탁에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감도는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제 주위에 앉아 떠들던 사람들은 이내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의 작고 성스러운 의식을 방해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소리를 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듯 다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신도(神道)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학생들에게 성호가 익숙지 않았기에, 그러한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일본의 문화적 특성상 남에게 민폐를 끼치

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 저는 모두의 즐거운 대화를 방해한 것 같아 고개를 돌려가며 ‘스미마셴’을 이리저리 작게 속삭이고 나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매일 하는 식전기도에는 내가 인생에서 한 끼를 함께 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톨릭 신자임을 밝힌다는 것은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식전기도를 의아하게 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밖에도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렸을 때, 무신론자인 지인에게서 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큰 틀로 보았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근래들어 상당히 높은



252  
RENÉ



상태입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강하게 포교하는 신자,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 등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식에 강렬하게 박혀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갖든 공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 전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리는 저에게, 친한 비신자 친구가 ‘식전 기도를 하며 가톨릭 신자인 것을 굳이 겉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굳이 드러내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친구의 조언처럼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거나, 반감을 살까봐 부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끼 식사가 불편하고 긴 시간이 될 수도,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에서 엔도 슈사쿠가 쓴 책의 등장인물 기치지로가 보였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에도시대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배교를 강요받는 신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교를 선택하는 페레이라 신부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맹세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선택하는 신부를 탓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이 책에서 기치지로는 배교와 회개를 오가며,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어쩔수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향한 시선, 더 나아가 미움을 감수해가며 성호를 그으려 손을 들 때마다, 제 오른손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만, 이번 한 번만, 식전 기도를 빼먹어볼까’ 하는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주셨으니, 제가 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식전 기도를 한두 번쯤 빼먹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겠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책 ‘침묵’처럼, 제가 매일 순교와 배교 사이의 고민의 무게 만큼이나 무거운 고민보다는 배로 가볍고 별 것 아닌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식전기도에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노라 하는 무거운 결심을 담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려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성호를 그어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 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 기성 교회 비판

1. 유사종교들은 기존 교회의 문제들 - 성 추문, 물질 관련 비리, 교회 내 권력 다툼, 교회 세습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교회가 부패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교회를 ‘탕녀 바빌론’이라고까지 부른다. 일부 유사종교 집단에서는 교회의 추문들과 비판의 목소리를 자료로 정리(신문 스크랩, 인터넷을 통한 검색 자료 등)해서 보여주기까지 한다.

2.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교회 안에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드러난다. 불법 행위만이 아니라,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 신앙을 찾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러한 추문 앞에서 실망한다.

3. 이러한 비판은 일면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의 쇠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비판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집단이 기존의 교회와는 다르며, 소위 ‘**성경적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실망한 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발판이다.

4. 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 제기들(교리, 사회 윤리적 문제, 가정문제, 재산문제, 성범죄 등)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소송이나 시위 등을 감행한다.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영이 예고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어 방송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신문사나 방송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거나 시설의 점거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반강제적인 집단행동은, 자신들의 비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신도들에게 자신들의 집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이것이 열성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집단에 제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유도하며, 탈퇴를 막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5.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이들이 모인 곳이다.** 죄인이며 부족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찾아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순명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부들은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불렀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에 머물지 않는다. **꿈임없이 쇠신하고 변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베푸시고 다양한 성인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이끄신다.

6. 교회 내부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죄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회개와 쇠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겸손하게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아가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비판은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지 파괴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가정 제례 예식

-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



## 가정 제례의 준비

제례 전에는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제례 때에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는다.

**상차림:** 제례상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 등을 준비한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 〈시작 예식〉

제례 준비가 끝나면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제례의 시작을 알리며 예식을 진행한다.

지금부터 명절을 맞이하여 한가위 차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성호경

**시작 성가:** 「가톨릭 성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가 50번(주님은 나의 목자), 54번(주님은 나의 목자), 227번(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436번(주 날개 밑), 462번(이 세상 지나가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시작 기도:** 가정은 오늘 거행하는 제례의 취지를 설명한 후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바친다.

잠시 침묵 후에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 ( )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말씀 예절〉

**성경 봉독:**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본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태 5,1-12(참 행복), 요한 14,1-14(아버지께 가는

길), 로마 12,1-21(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과 생활 규범), 1코린 13,1-13(사랑), 에페 5,6-20(빛의 자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가정의 말씀:** 가정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정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가톨릭 기도서」 74-79면 또는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생각하며 비오니 주님의 성인들과 뽀얀 이들 반열에 들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각각 한 번씩 하고 다음 기도로 위령 기도를 마친다.

+ 주님, ( )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 )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마침 예식〉

**마침성가:** 「가톨릭 성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가 50번(주님은 나의 목자), 54번(주님은 나의 목자), 227번(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436번(주 날개 밑), 462번(이 세상 지나가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하일리겐슈타트에서 (2)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하일리겐슈타트에 있는 베토벤 산책길은 비엔나 시내 중심에서 출발한 전차의 종점 역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나즈막한 구릉을 끼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구릉 위에 오르면 목가적인 풍경을 기분 좋게 내려다볼 수 있죠. 하일리겐슈타트의 공원묘지도 인상적인데 묘지 뒤가 바로 포도밭입니다. 묘지를 산책하며 정성스레 꾸며진 묘석에 적힌 기도문들과 비문들을 읽다가 포도 나무들로 눈을 돌려봅니다. 묘지에 감도는 죽음의 엄숙함과 포도가 상징하는 삶의 약동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일리겐슈타트 곳곳에 있는 ‘호이리게’들은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자신의 포도밭에서 딴 포도들로 포도주를 마련하고 간단한 음식들을 대접하는 소박한 식당들을 ‘호이리게’라 부르는 것인데 포도밭의 경관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곳입니다. 이름난 호이리게들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다는 것을 걸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토벤 산책로를 걷다보면 공원이 나오고, 베토벤 흉상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습니다. 베토벤이 거주했던 하일리겐슈타트 읍내의 공원에서도 역시 근사한 베토벤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토벤 상은 물론 비엔나를 대표하는 음악당인 빈 콘체르트하우스 근처의 베토벤 공원에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만나는 베토벤 상들 역시 인상적입니다. 조각에서 보이는 베토벤은 그 의지가 하늘에 닿을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불굴의 의지는 사실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내물리게 했던 절망에서부터 피어난 것이라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는 그 절망의 기록이자 동시에 그 깊은 절망을 응시한 사람이 값싼 위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신이 부여한 소명을 깊이 체험하며 희

망과 광명을 향해 한발씩,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간 기록입니다. 그의 두 동생에게 보내는 이 별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 유서를 베토벤은 실제로는 동생들에게 보내지 않았고,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의 사후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악학자 얀 카이에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유서는 ‘비극적인 상실감이 성취감으로 변신하는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천재성은 유일무이하지만,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도약을 위한 계기였음을 감지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이의 삶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베토벤의 예술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절망의 그 끝까지 닿은 후 음악에 새로운 길을 열고 놀라운 음악적, 정신적 위대함을 보여준 작품이 그가 하일리겐슈타트를 떠날 무렵 내어놓은 세 번째 교향곡 “에로이카(영웅)”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헌정하는 대신에 ‘한 위인의 추억을 기리며’라는 부제를 남겨놓습니다. ‘위인’은 세속적 영광을 지닌 정치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고통과 고뇌를 견디고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라는 사실을 근년에 타계한 거장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연주로 베토벤의 ‘에로이카’ 교향곡의 2악장 장송행진곡을 들으며 확인합니다. 🎧

YOUTUBE로 보기



베토벤

“에로이카” 교향곡 2악장 장송행진곡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 미사 · 피정 ▶▶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9/26(목)~29(일) /28만 원  
 성경완독피정: 10/26(토)~11/3(일)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

※1박2일 피정

일시: 9/27(금)~28(토) 14시

장소: 가회동 노틀담 교육원

참가비: 무료(20명 모집, 9/20까지 신청)

※월례 미사

일시: 매월 세번째(토) 10:30(9/21)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문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727-2496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9/28~29, 10/26~27

3박4일: 10/3~6, 11/21~24

8박9일: 10/9~17, 11/4~12

40일: 9/16~10/25, 12/13~20/1/21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

일시,장소: 9/15 파티마평화의성당 , 10시 기도, 11시 강의, 고해성사, 14시 미사, 성체 거동행렬, 강복(점심제공) 031-952-6324

### 제주현형의집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9/16~18, 10/17~19, 10/27~29

제주전체성지순례(추차도포함):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젊음이 피정

일시: 9/20 17시~9/22 13시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여주피정의집)

대상: 성소를 찾는 35세미만 여성

신청: 010-9816-0072, 회비 2만 원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천송이 묵주기도

일시: 9/17(화) 09시~16:30

장소: 후곡성당 대성당

※점심(김밥) 제공합니다.

###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동-관상과 성찰 2 /최준열 신부

일시: 9/16(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 교육 · 모집 ▶▶

### 청년성서모임 센터그룹공부 그룹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장소: 화정동성당 512호(말씀의방)

기간: 9/1(일)~9/14(일)

신청방법: club.cyworld.com/godloveujb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ujbbible@gmail.com으로 이메일 접수

문의: 031-979-7065(말씀의방)

### 청년 렉시오디비나 (마르코복음)

일시: 9/23 시작~11월까지 총9회(월)19시

대상: 주님 말씀을 갈망하는 2030청년

장소: 의정부 바오로딸서원 /회비: 만 원

문의: 010-2503-5185 김스페란자 수녀

※본당 청년회나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갑니다.

###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기,

금관악기 /일시: 매주(일) 13:30

장소: 피델리스 임시 연습실(일산 가좌동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오디션곡은 자유곡)

문의: 010-3642-3574

### 복음화학교 개강 37기 (2019년 하반기)

마두동 성당 9/23(월) 20시 <오후반>

호평동 성당 9/24(화) 11시 <오전반>

마석 성당 9/25(수) 11시 <오전반>

문의: 010-5535-5791(오경은 루치아)

### 청년 수지에니어그램 안내

교육내용: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 수용하는 여정

강사: 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 수사

일시: 10/12(1차), 11/9(2차), 12/14(3차)

14시~18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인원: 각 차수별 의정부교구 청년 10명(선착순)

참가비: 1인 1만 원(저녁식사 제공)

문의: 청소년사목국 031-850-1460

###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 순례자의 얼굴

- 내가 바라본 평화

- 나의 이웃은?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samok@uca.or.kr

###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19 DMZ 평화의 길

기간: [3차] 10/3(목)~6(일)

장소: 파주-연천 구간

대상·인원: 초6학년 이상 누구나(선착순 마감)

참가비: 15만 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주최: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 2020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장소: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초4~중2 (모집인원: 50명)

기간: 2020.01/04~02/16(6주) 비용: 420만 원

전화: 031-207-4982, 010-4442-4982

블로그: http://blog.naver.com/cficengcamp

### 2020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기간: 9/6(금)~9/10(화)

수시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전형: 학생부교과(면접고사), 실기(실기고사)

입학문의: 032-830-7012(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띠노인요양원)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19~2020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9/22(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접수: 9/19(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서울대교구 내 전서관 안내봉사자 모집**

활동기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합정동),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명동),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종림동) /모집: ~9/30(월)까지  
 활동내용: 성지 안내봉사  
 모집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교우  
 교육기간: 10/5(토)~10/27(주일) (매 주말4주간 진행)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 <http://naver.me/5rhdiFPr>  
 문의: 02-3142-4504(절두산순교성지)

**신학과사상학회 제7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주제: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 물리학적, 신학적, 철학적 새 전망 -  
 일시: 9/27(금) 13:30~18시  
 9/28(토) 9시~18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문의: 02-740-9731 <http://stt.catholic.ac.kr>  
 주최: 신학과사상학회, 한국가톨릭철학회  
 ※동시통역으로 진행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 모집**

대상: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교우  
 문의: 010-5744-9333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모집**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오래 함께 같이 할 칸호사를 찾습니다. (기숙사 제공)  
 장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문의: 02-802-9311, 894-9312  
 홈페이지: jeonjinsang.or.kr(전.진.상의원)

 **안내 · 기타 ▶▶**

**베트남과 마카오 성지순례 02-755-3009**

해외: 10/14~10/18, 12/14~12/18  
 대전교구: 9/27~9/28, 10/11~10/12  
 대구교구: 11/7~11/8, 11/22~11/23

**노인공동가정생활(바로로성모의집)이용자접수**

시설명: 노인공동가정생활(바로로성모의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치매판정자 이용불가)\*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설립25주년)  
 문의: 02-381-7510 (010-5235-1130)  
 담당자: 권크리스티나수녀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http://www.green1004.or.kr)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 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10/21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라파엘여행사02-778-8565**

10/4, 11/4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10/7, 11/7 이태리일주9일 279만 원  
 10/6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 원  
 11/1 홍콩 마카오4일 129만 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http://www.holyfcac.or.kr)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고2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oakinternational.co.kr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전화접수  
 031-850-1406, 850-1411  
 전자우편  
[clergy@uca.or.kr](mailto:clergy@uca.or.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살레시오회	9/28(토)~29(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매월 셋째주 일 14시	수녀회 본원	010-2353-6219



## 가장 큰 계명(2)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31)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십계명의 첫 세 개의 계명이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충실하고 성실한 사랑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네 번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계명들의 내용은 ‘이웃’ 곧, 나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당부’는 곧, 사랑은 자신 안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는 기쁨과 평화와 자비이며, 사랑은 친절과 우정 어린 충고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호의이며, 사랑은 상호 유대를 촉진하고 욕심이 없고 너그럽습니다. 사랑은 우정이며 친교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29항)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켜내며 이웃들과 화목하게 어울려 지내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과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 사

이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중심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입니다.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89항)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을 멈춰버리면, 결국 스스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사랑받을 기회도 사랑을 나눌 기회도 구원을 얻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사회·정치공동체 안에서, 국가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주며,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을 때, “나”와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